

조선악녀 임지연·갑질재벌 허남준... '멋진 신세계'

등록 2025.10.16 09:31:20



임지연(왼쪽), 허남준

[서울=뉴시스] 최지윤 기자 = 배우 임지연과 허남준이 로맨스물로 입 맞춘다.

SBS TV 금토극 '멋진 신세계'는 조선 최대의 악녀 '신서리'(임지연)와 대한민국 악질 재벌 '차세계'(허남준)의 로맨스다. 임지연은 1인 2역에 도전한다. 조선 악녀 '강단심'이 빙의 된 대한민국 무명배우 '신서리'로 변신한다. 단심은 '나라를 뒤흔드는 요녀'라 불리며 사약을 받고, 2026년 서리로 눈을 뜬다.

세계는 차일그룹 유일무이한 후계자다. 갑질 재벌로 낙인 찍힌 뒤 무당 한복 차림으로 조선시대를 코스프레하는 서리가 나타난다.

'치열업'(2022) 한태섭 PD와 영화 '소울메이트'(2023) 강현주 작가가 만든다. 내년 방송.

©공감언론 뉴시스 plain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